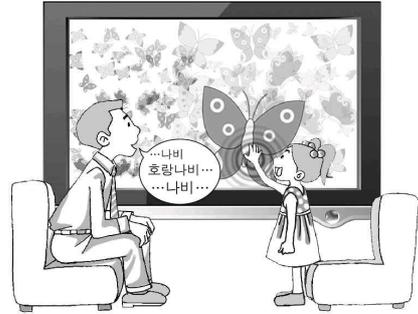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차 안에서처럼 두 개의 의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옆에는 스크린이 창문처럼 설치되어 있다. 관람객들이 이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 대화 속의 단어들에 상응하는 이미지들이 화면 가득히 나타나 입체적 영상을 만들어 낸다. 이는 소머러와 미그노뉴의 디지털 아트 작품인 ‘인터넷 타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은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분명 종래의 예술관에 대한 도전이다. 종래의 예술관은 수용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예술 이외의 모든 관심과 욕구로부터 ㉣초연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관조적 태도와 함께 예술 작품 자체도 모든 것에서 벗어난 순수한 객체가 됨으로써 이제 예술은 그 어떤 ㉤권위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율적 영역이 된다. 이 때문에 종종 예술은 쓸모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현실의 모든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 공간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이 예술을 상호 작용 공간으로 만들 경우 미적 해방 공간마저 일상적 삶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예술 이외의 관심과 욕구로 얼룩지고 마는 것인가? 넓게 보자면 인간은 세상과의 ㉧부단한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상호 작용이 외적·내적 요인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을 낳을 때, 인간의 경험은 대립과 분열 속에 빠지며, 이것이 지속될 때 삶은 위기를 맞는다. 반면 각각의 상호 작용의 고유성이 보호되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전체 속에서 통일될 때 인간의 삶은 ㉨극치를 이룬다. 존 듀이는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체험을 ㉩미적 체험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러한 미적 체험은 현실적 삶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것은 예술 작품 속에서 상이한 요소, 행동, 사건, 주체들이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예술의 신성화가 아니라, [예술의 세속화]를 원한다. 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호 관계와 경험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미적 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가 이러한 미적 체험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장을 만든다면, 이는 예술 작품을 넘어 삶 속에서도 미적 체험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5. <보기>의 입장에서 ‘예술의 세속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상은 의지의 표현이며, 이 의지는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맹목적 충동일 뿐이다. 이 충동은 하나가 만족되면 새로운 충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은 맹목적 충동의 사슬이 불리일으키는 불만족과 갈등에 시달린다. 미적 관조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인간은 잠시나마 이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① 예술의 세속화는 자기 보존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 ② 예술의 세속화는 상호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예술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 ③ 예술의 세속화는 역으로 예술을 인간의 맹목적 충동에 종속시킬 위험성을 갖는 것은 아닐까?
- ④ 예술의 세속화는 오히려 인간이 현실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아닐까?
- ⑤ 예술의 세속화는 미적 관조를 현실 세계로 확산시키므로 삶의 통일성에 대한 경험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 **해설** ■ 편하게 공부하려는 자에게 해설진 '독(毒)'이다.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만 '약(藥)'이 된다.

비문학, 예술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

- ① '인터넷 타기'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최근의 예술적 시도(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경계 넘어 작품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 참여시킴.)
- ② 종래 예술관(수용자 참여 불허,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 예술 작품은 순수한 객체, 예술은 자율적 영역, 현실로부터 벗어난 해방 공간)에 대한 도전
- ③ 예술을 상호 작용의 공간으로 만들 경우, 미적 해방 공간이 훼손되는 것 아닐까? 대립과 분열 속에 빠질 수도 있으나, 상호작용이 통일되어 삶의 극치를 이룰 수도 있다. / 존 듀이 - 통일성에 대한 체험을 미적 체험으로 간주.
- ④ 듀이는 예술의 세속화를 원한다. 분열된 일상의 상호 관계와 경험들이 미적 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도는 예술 작품을 넘어 삶 속에서도 미적 체험을 성취하는데 기여할 것

[주제]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가 갖는 의의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의 의의를 종래의 예술관과 대비하고, 존 듀이의 견해들 들어 소개하고 있다.

45. ⑤

☞ **유형 10 비판의 타당성과 독자의 반응 (정답률 55%)**

<보기>에 따르면,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의지이자 맹목적 충동, 불만족, 갈등, 고통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미적 관조'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자 해탈로 인식하고 있다. 즉,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반면, 존 듀이의 '예술의 세속화'는 예술을 세상과 결합시켜 미적 체험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존 듀이의 <'예술의 세속화'를 통한 '통일성에 대한 체험'>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해탈, 순수, 미적 관조, 예술'을 '세상, 의지, 대립, 갈등, 맹목적 충동, 불만족, 고통, 현실'로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행위로 인식될 것이다.

⑤에서 '예술의 세속화는 미적 관조를 현실 세계로 확산시킨다.'라는 내용은 쇼펜하우어의 취할 만한 비판적 입장이 될 수 없다.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미적 관조'는 고통스럽고 타락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현실 세계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삶의 통일성에 대한 경험'은 존 듀이가 지향하는 것이지만 쇼펜하우어가 지향하는 바인 '해탈의 경지'와는 개념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⑤와 같은 비판은 쇼펜하우어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비판이다.

▶ 오답피하기

- ①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예술의 세속화=통일성에 대한 체험’은 ‘세상, 의지, 대립, 갈등, 맹목적 충동, 불만족, 고통, 현실’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 ②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예술의 세속화는 ‘현실, 대립, 갈등’의 관계 때문에 ‘예술의 순수성, 미적 관조, 해탈’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 ③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예술의 세속화는 ‘예술, 순수, 미적 관조, 해탈’을 ‘세상, 의지, 대립, 갈등, 맹목적 충동, 불만족, 고통, 현실’에 종속시키는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 ④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예술의 세속화는 ‘해탈, 순수, 미적 관조, 예술’이 ‘세상, 의지, 대립, 갈등, 맹목적 충동, 불만족, 고통, 현실’ 때문에 불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 찬희 Point! 지문의 뼈대를 움켜쥐어라.

지문과 보기 내용의 주요 개념들이 이원적 대립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핵심이다.

종래의 예술관	최근의 예술적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 참여 불가능 • 미적 관조 • 작품은 순수한 객체, 예술은 자율적 영역 • 예술 = 미적 해방 공간 • 예술의 신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펜하우어 • 세상 = 맹목적 충동, 불만족, 갈등, 고통 • 미적 관조 = 세상에서 벗어남 = 해탈의 경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 • 삶의 통일성 체험 = 미적 체험 • 일상의 상호 관계와 경험들을 이 세상 속에서 통합 • 예술 = 상호 작용 공간 • 예술의 세속화 • 존 듀이

☞ 2011학년도 수능 [21~24] 지문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현대 체계 이론 미학’ / 2009년 9월 시행 모의평가 [44~47]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 / 2009년 6월 시행 모의평가 [47~50] 지문 ‘영화의 추상적 의미 표현’ / 2009학년도 수능 [16~19] 지문 ‘각 시대의 음악 양식에 적용된 반복의 원리’ / 2006학년도 수능 [44~47] 지문 ‘현대 공연 예술의 특징’ / 2005년 9월 시행 모의평가 [53~56] 지문 ‘과학에서의 역사적 질문과 역사적 서술’ / 1996학년도 수능 [56~60] 지문 ‘철학과 과학의 속성’ / 1994학년도 2차 수능 [23~36] 지문 ‘역사적 사실의 보편성과 특수성’, [49~51] 지문 ‘홀론과 인간’ / 1994학년도 1차 수능 [56~60] 지문 ‘신과학 운동’을 보라.

▶ 찬희 Point!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깊은 통찰력을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을 거의 보지 못했다.

쇼펜하우어의 머릿속에서 현실과 예술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명확히 경계가 나뉘져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깨끗한 물과 진흙탕을 섞어서는 안 된다.”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는 <예술과 현실을 섞어서 미적 체험을 이룰 수 있다>는 예술의 세속화 주장은 마치 <깨끗한 물에 더러운 진흙탕을 섞어서 멋진 음료수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처럼 황당하고 어리석게 여겨질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웃기고 있네. 멋진 음료수는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고 말 거야.”

쇼펜하우어는 ‘예술의 세속화’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더 나아가 ‘미적 관조’를 망치고 ‘미적 해방 공간’ 또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길을 차단하는 짓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최고의 학습 교재는 수능과 평가원모의고사 기출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학습 교재는 없다. ‘평가원 표’ 기출 문제들은 언어 학습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 이 자료는 전개년도 수능 기출 ·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서, ‘마르고 닳도록’ (이찬희 씀)의 일부 내용입니다.

※ [네이버 카페] 찬희와 함께 춤을 <http://cafe.naver.com/hibabykissme>